

설문조사 분석

- 설문제목: 『2022년 노회찬재단 미션과 사업방향 설문조사』
- 설문기간: 2022. 4. 4(월) ~ 4. 15(금)
- 설문문항: 63 문항
- 응답자수: 610명 (회원 503명, 비회원 107명)

■ 응답자 성 정체성

			성정체성			전체
			남성	여성	무응답	
후원회원	예	빈도	294	195	14	503
		비율	58.4%	38.8%	2.8%	100.0%
	아니오	빈도	74	32	1	107
		비율	69.2%	29.9%	.9%	100.0%
전체		빈도	368	227	15	610
		비율	60.3%	37.2%	2.5%	100.0%

■ 응답자 연령대

연령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합계
빈도	4	35	71	225	214	58	3	610
%	0.7	5.7	11.6	36.9	35.1	9.5	0.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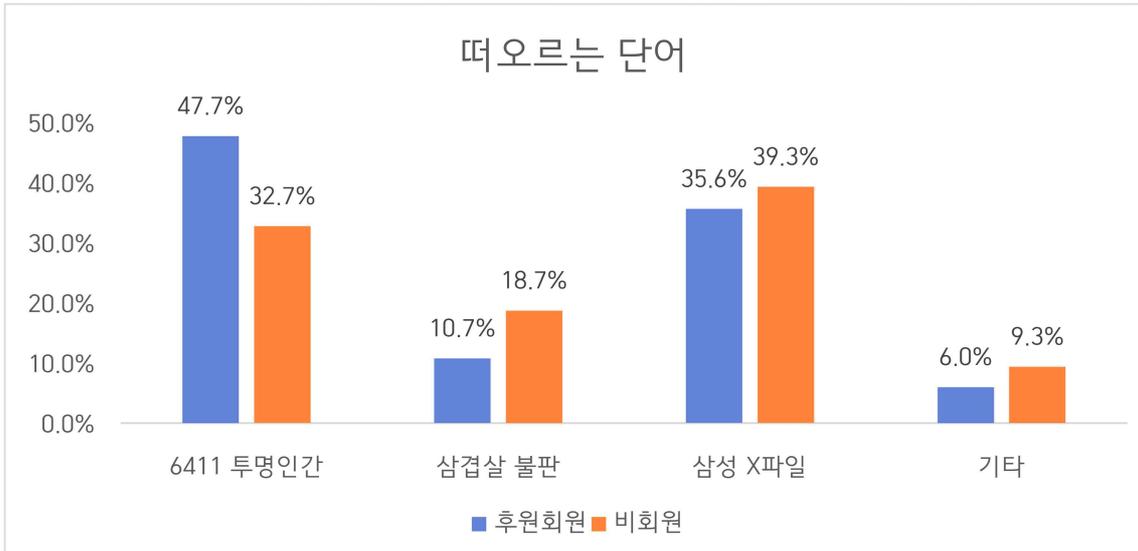
■ 응답자 지역별 현황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빈도	215	39	19	35	12	14	5	183	13	8
%	35.2	6.4	3.1	5.7	2.0	2.3	0.8	30.0	2.1	1.3
지역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해외	합계	
빈도	7	12	6	8	16	8	7	3	610	
%	1.1	2.0	1.0	1.3	2.6	1.3	1.1	0.5	100.0	

■ 응답자 직업 현황

직업	전문직(의사, 변호사, 약사 등)	경영/관리직	사무직	기술직	판매/서비스직	기능/작업/단순노무직	농/임/어/축산업	자영업
빈도	69	43	152	45	19	33	2	45
%	11.3	7.0	24.9	7.4	3.1	5.4	.3	7.4
직업	시민사회단체	정당	전업주부	프리랜서	학생	무직	기타	합계
빈도	18	17	40	68	39	15	5	610
%	3.0	2.8	6.6	11.1	6.4	2.5	0.8	100.0

■ 노회찬 의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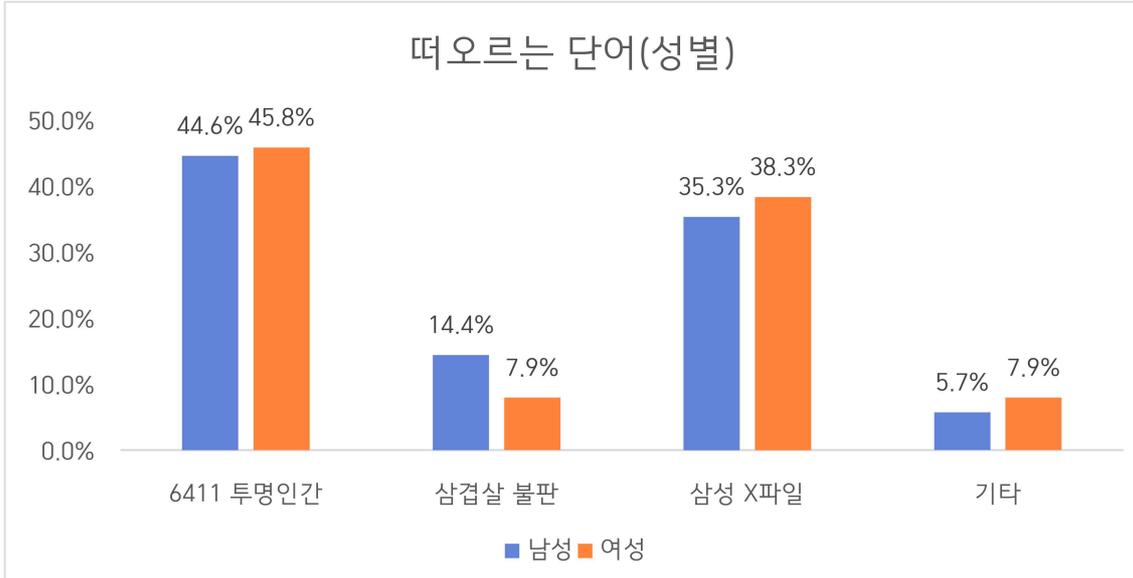


			떠오르는 단어				전체
			6411 투명한간	삼겹살 불판	삼성 X파일	기타	
후원회원	예	빈도	240	54	179	30	503
		비율	47.7%	10.7%	35.6%	6.0%	100.0%
	아니오	빈도	35	20	42	10	107
		비율	32.7%	18.7%	39.3%	9.3%	100.0%
전체	빈도	275	74	221	40	610	
	비율	45.1%	12.1%	36.2%	6.6%	100.0%	

- 후원회원의 경우 노회찬 의원에게서 가장 먼저 연상되는 단어는 <6411 투명한간>(47.7%)인 것으로 나타났다 . 다음으로 <삼성 X파일>(35.6%), <삼겹살 불판>(10.7%)의 순서를 보여주고 있다.
- 이와 달리 비회원의 경우 <삼성 X파일>(39.3%)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6411 투명한간>(32.7%), <삼겹살 불판>(18.7%)의 순서를 보여 주고 있다.
- 이는 회원들에게 6411 투명한간과 관련한 사업의 내용이 많이 전달되었던 점과 작년에 개봉한 다큐영화 <노회찬 6411>의 영향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노회찬 6411> 제작 후원으로 <6411 서포터즈>에 1만 2천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였고, 또 서포터즈 중에서 재단의 정기후원회원으로 가입한 분들도 많았다. 설문결과는 회원 구성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삼성 X파일>의 경우 회원, 비회원 모두 30%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한 재단 사업 중에서 <삼성 X파일>과 관련한 사업이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높은 비율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삼성 X파일> 역시 대중 소구력이 있는 의제로 향후 재단의 사업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비회원에게는 <삼겹살 불판>도 18.7%로 나타나 상대적으로는 낮긴 하지만 절대적으로 작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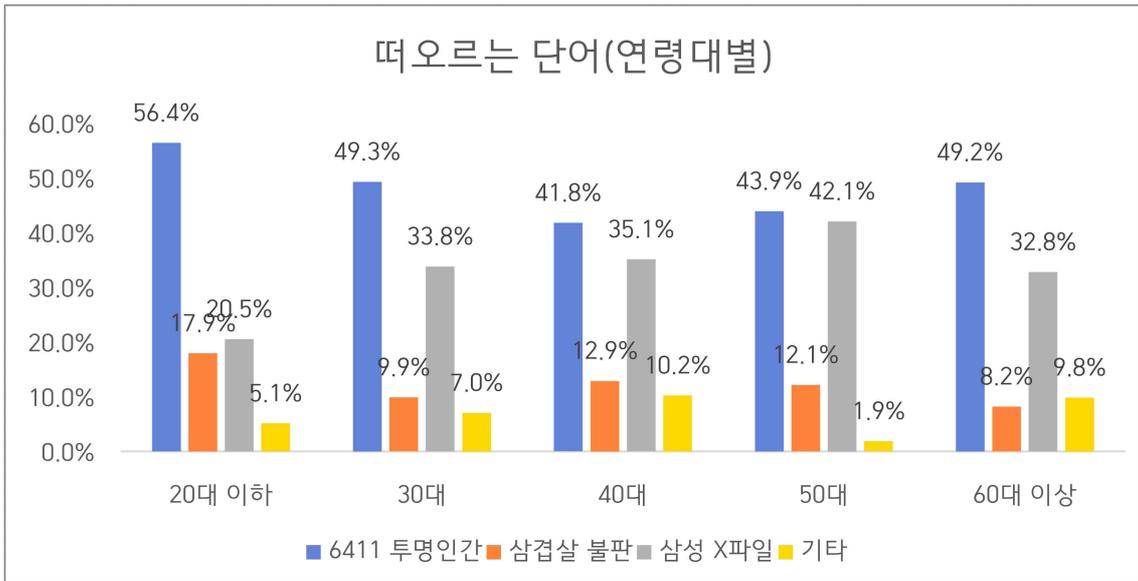
비율이라고는 볼 수 없다.

- 향후 재단의 사업을 <6411 투명인간>과 관련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 <삼성 X파일>과 관련하여 부당한 권력에 맞서는 투명한 사회 실현을, <삼겹살 불판>과 관련하여 정치 개혁이라는 과제를 3개의 축으로 설정하여 사업을 구상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떠오르는 단어				전체
			6411 투명인간	삼겹살 불판	삼성 X파일	기타	
성정체성	남성	빈도	164	53	130	21	368
		비율	44.6%	14.4%	35.3%	5.7%	100.0%
	여성	빈도	104	18	87	18	227
		비율	45.8%	7.9%	38.3%	7.9%	100.0%
	무응답	빈도	7	3	4	1	15
		비율	46.7%	20.0%	26.7%	6.7%	100.0%
전체		빈도	275	74	221	40	610
		비율	45.1%	12.1%	36.2%	6.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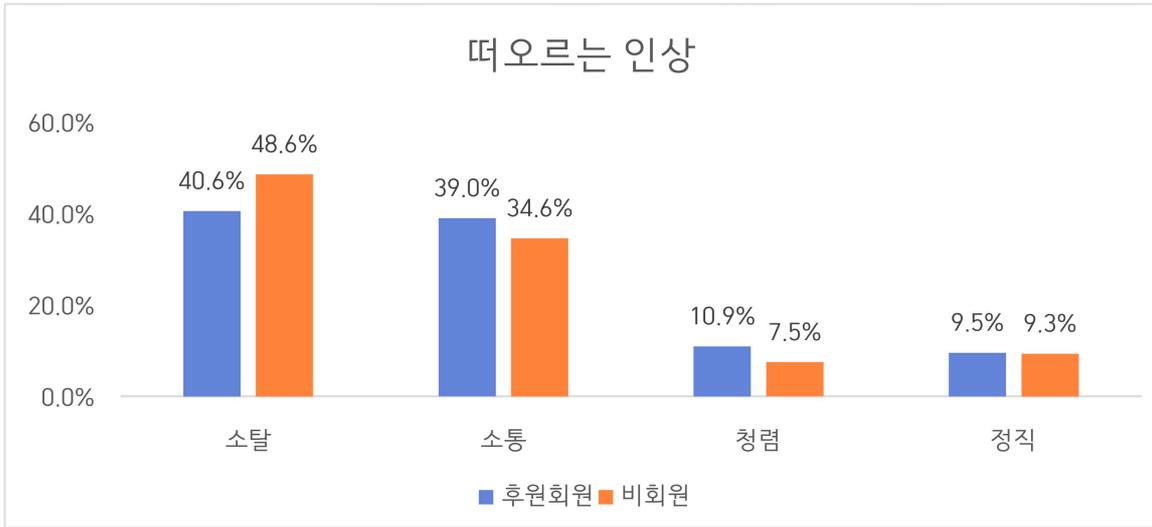
- 노회찬 의원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성별로 살펴본 결과이다. 가장 먼저 연상되는 단어는 남녀 모두 <6411 투명인간>(남성 44.6%, 여성 45.8%)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삼성 X파일>, <삼겹살 불판> 순을 보여주고 있다.
- <삼성 X파일>은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3% 포인트 더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남성 35.3%, 여성 38.3%).
- 반면에 <삼겹살 불판>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은 비율로 연상하고 있다(남성 14.4%, 여성 7.9%).



			떠오르는 단어				전체
			6411 투명인간	삼겹살 불판	삼성 X파일	기타	
연령대	20대 이하	빈도	22	7	8	2	39
		비율	56.4%	17.9%	20.5%	5.1%	100.0%
	30대	빈도	35	7	24	5	71
		비율	49.3%	9.9%	33.8%	7.0%	100.0%
	40대	빈도	94	29	79	23	225
		비율	41.8%	12.9%	35.1%	10.2%	100.0%
	50대	빈도	94	26	90	4	214
		비율	43.9%	12.1%	42.1%	1.9%	100.0%
	60대 이상	빈도	30	5	20	6	61
		비율	49.2%	8.2%	32.8%	9.8%	100.0%
전체		빈도	275	74	221	40	610
		비율	45.1%	12.1%	36.2%	6.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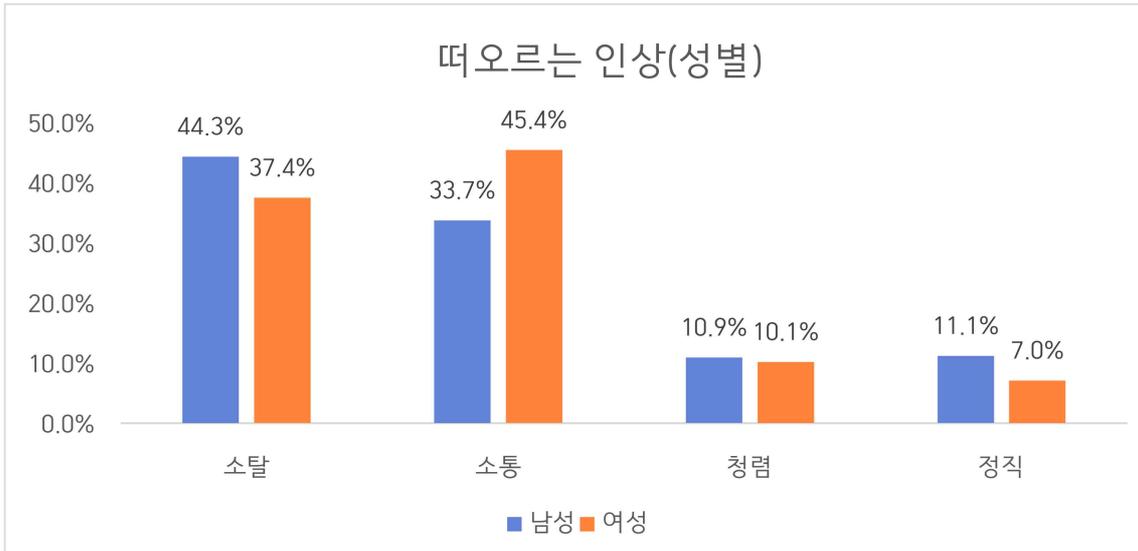
- <6411 투명인간>은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상대적으로 20대, 30대, 60대 이상에서 비율이 좀 더 높고, 40대, 50대에서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비율이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삼성 X파일>은 두 번째로 비율이 높는데 연령별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5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 X파일> 사건과 그로 인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사실을 가장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연령대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40대가 <삼성 X파일>을 가장 많이 연상하고 있다.

■ 노회찬 의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상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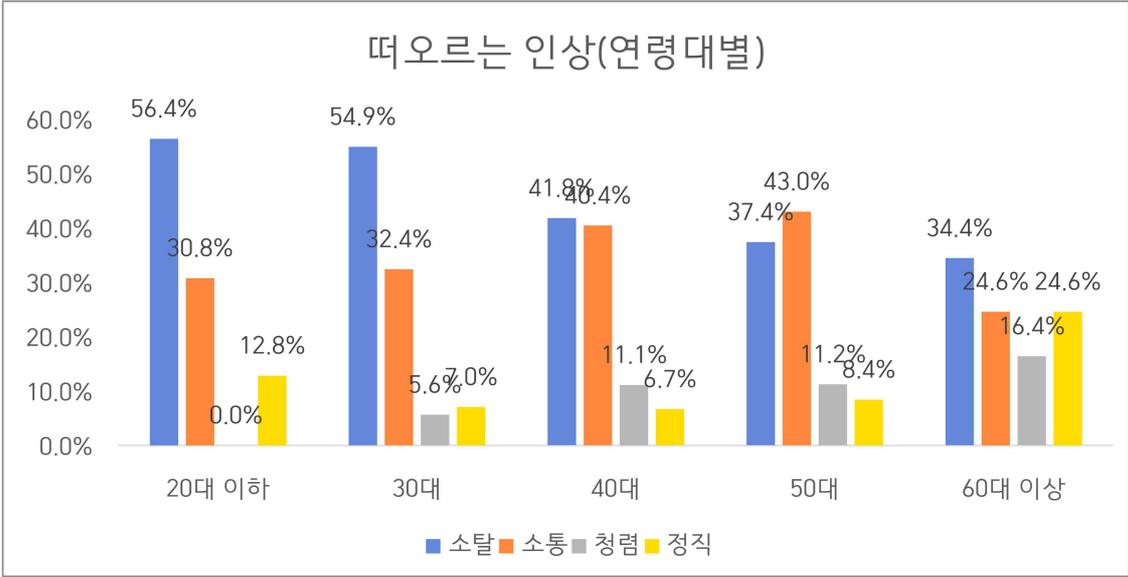
			떠오르는 인상				전체
			소탈	소통	청렴	정직	
후원회원	예	빈도	204	196	55	48	503
		비율	40.6%	39.0%	10.9%	9.5%	100.0%
	아니오	빈도	52	37	8	10	107
		비율	48.6%	34.6%	7.5%	9.3%	100.0%
전체		빈도	256	233	63	58	610
		비율	42.0%	38.2%	10.3%	9.5%	100.0%

- 회원의 경우 노회찬 의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상으로 <소탈>(40.6%), <소통>(39.0%), <청렴>(10.9%), <정직>(9.5%)의 순으로 꼽고 있다
- 비회원의 경우 <소탈>(48.6%), <소통>(34.6%), <정직>(9.3%), <청렴>(7.5%)의 순을 보여준다.
- 회원의 경우에는 <소탈>과 <소통>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나, 비회원의 경우에는 <소탈>이 <소통>에 비해 14%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다.
- 노회찬 의원은 시민들에게 가장 먼저 <소탈한 정치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소통하는 정치인>으로 비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재단 사업에서 소통과 공감 외에 노회찬 의원의 소탈한 면을 대중적으로 형상화할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떠오르는 인상				전체
			소탈	소통	청렴	정직	
성별	남성	빈도	163	124	40	41	368
		비율	44.3%	33.7%	10.9%	11.1%	100.0%
	여성	빈도	85	103	23	16	227
		비율	37.4%	45.4%	10.1%	7.0%	100.0%
	무응답	빈도	8	6	0	1	15
		비율	53.3%	40.0%	0.0%	6.7%	100.0%
전체		빈도	256	233	63	58	610
		비율	42.0%	38.2%	10.3%	9.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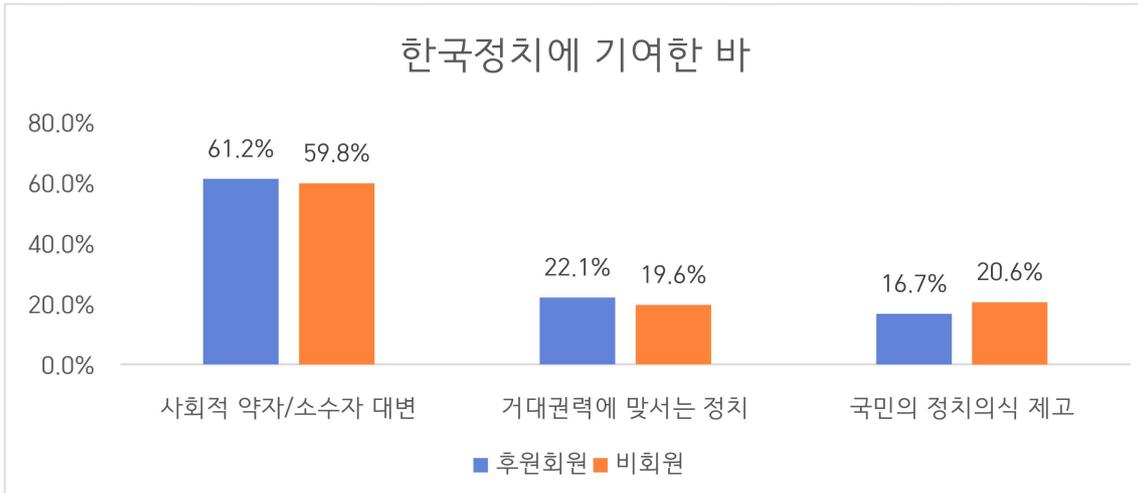
- 남성의 경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상으로 <소탈>을 먼저 꼽은 반면에(44.3%), 여성의 경우 <소통>의 비율이 가장 높다(45.4).
- <소탈>이 개인적인 성품의 특질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소통>은 사람과의 관계적 측면에 초점을 둔 특질이라 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계라는 측면에서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떠오르는 인상				전체
			소탈	소통	청렴	정직	
연령대	20대 이하	빈도	22	12	0	5	39
		비율	56.4%	30.8%	0.0%	12.8%	100.0%
	30대	빈도	39	23	4	5	71
		비율	54.9%	32.4%	5.6%	7.0%	100.0%
	40대	빈도	94	91	25	15	225
		비율	41.8%	40.4%	11.1%	6.7%	100.0%
	50대	빈도	80	92	24	18	214
		비율	37.4%	43.0%	11.2%	8.4%	100.0%
	60대 이상	빈도	21	15	10	15	61
		비율	34.4%	24.6%	16.4%	24.6%	100.0%
전체		빈도	256	233	63	58	610
		비율	42.0%	38.2%	10.3%	9.5%	100.0%

- 50대를 제외하고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상으로 <소탈>을 꼽고 있다. 반면 50대의 경우 <소통>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 60대 이상 연령대에서는 <정직>이 <소통>과 같은 24.6%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 노회찬 의원이 한국정치에 가장 기여한 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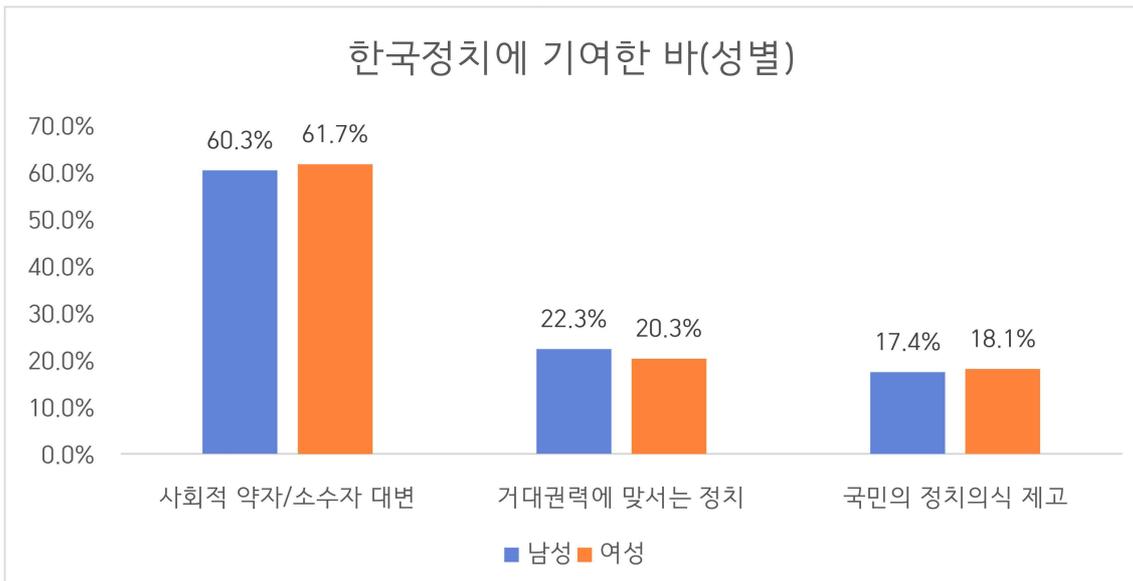


			한국 정치 기여			전체
			사회적 약자/소수자 대변	거대권력에 맞서는 정치	국민의 정치의식 제고	
후원회원	예	빈도	308	111	84	503
		비중	61.2%	22.1%	16.7%	100.0%
	아니오	빈도	64	21	22	107
		비중	59.8%	19.6%	20.6%	100.0%
전체		빈도	372	132	106	610
		비중	61.0%	21.6%	17.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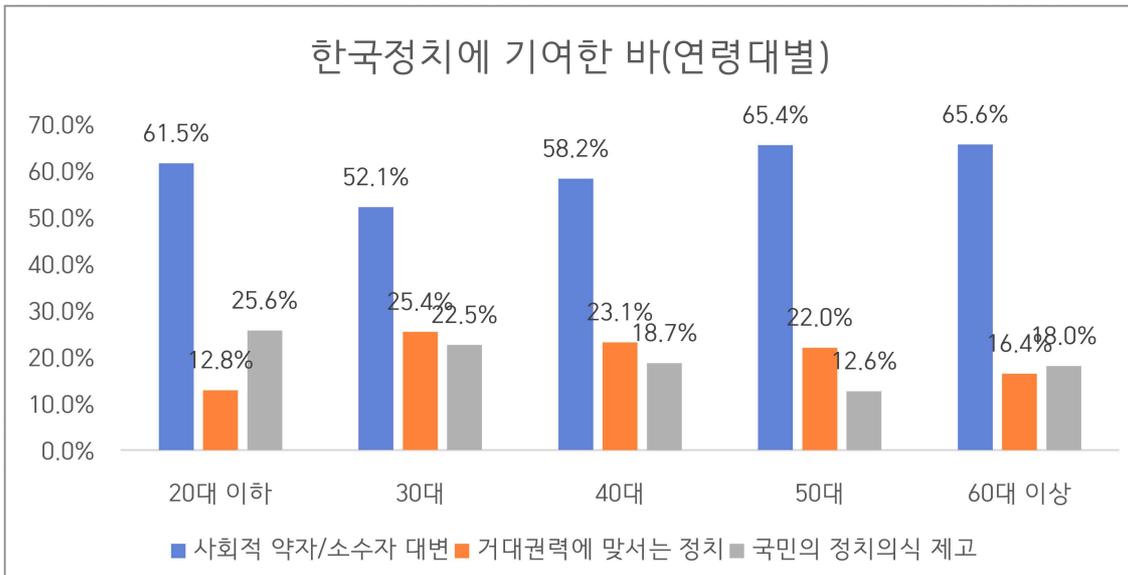
- 후원회원과 비회원 모두 노회찬 의원이 한국 정치에 가장 기여한 바로 <사회적 약자/소수자 대변>을 꼽고 있음
- 2순위는 회원과 비회원이 다르게 나타남. 후원회원의 경우 <거대권력에 맞서는 정치>를 꼽은 반면, 비회원의 경우 <국민의 정치의식 제고>를 꼽고 있음
- 노회찬 의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와 교차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한국 정치 기여			전체
			사회적 약자/소수자 대변	거대권력에 맞서는 정치	국민의 정치의식 제고	
떠오르는 단어	6411 투명인간	빈도	198	36	41	275
		%	72.0	13.1	14.9	100.0
	삼겹살 불판	빈도	38	18	18	74
		%	51.4	24.3	24.3	100.0
	삼성 X파일	빈도	111	73	37	221
		%	50.2	33.0	16.7	100.0
	기타	빈도	25	5	10	40
		%	62.5	12.5	25.0	100.0
전체		빈도	372	132	106	610
		%	61.0	21.6	17.4	100.0

- 떠오르는 단어로 <6411 투명인간>을 선택한 응답자는 고 노회찬의원의 한국 정치에 기여한 바를 <사회적 약자/소수자 대변>으로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삼성 X파일>을 선택한 응답자의 33%는 <거대권력에 맞서는 정치>를 기여한 바로 꼽고 있다. <삼겹살 불판>을 선택한 응답자는 <거대권력에 맞서는 정치>와 <국민의 정치의식 제고>를 동일한 비율로 선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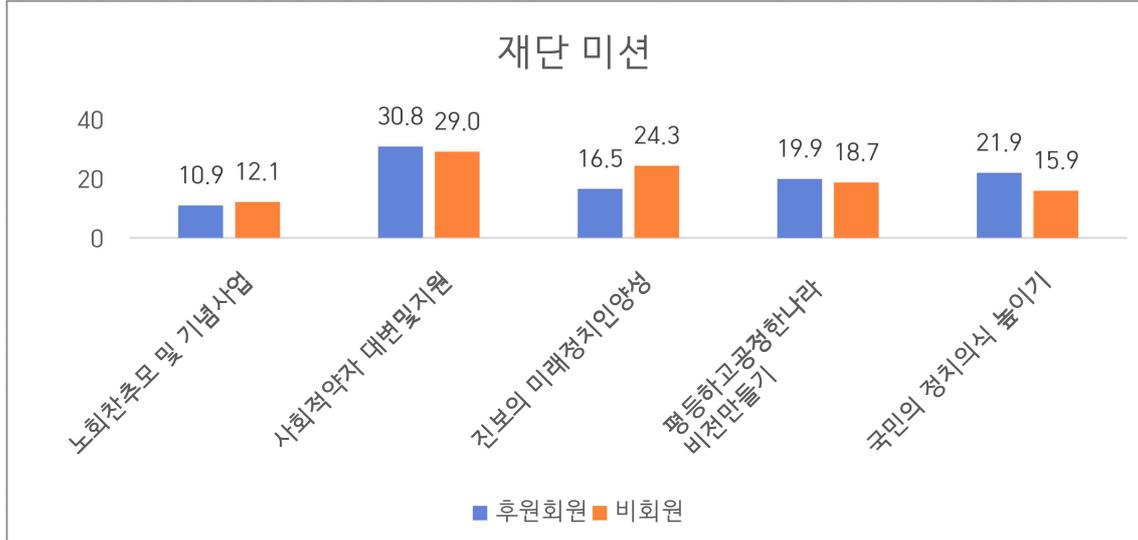


- 한국정치에 기여한 바에 대한 질문에서 성별 응답의 차이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 20대, 50대, 60대 이상에서 <사회적 약자/소수자 대변>이라는 응답이 60% 이상으로 높게 나왔다.
- 30대, 40대, 50대에서는 <거대권력에 맞서는 정치>가 20%대를 보여주고 있다.
- 20대 이하에서는 <국민의 정치의식 제고>가 25.6%로 두 번째 응답 순위를 보이고 있다.

■ 노회찬재단이 삼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미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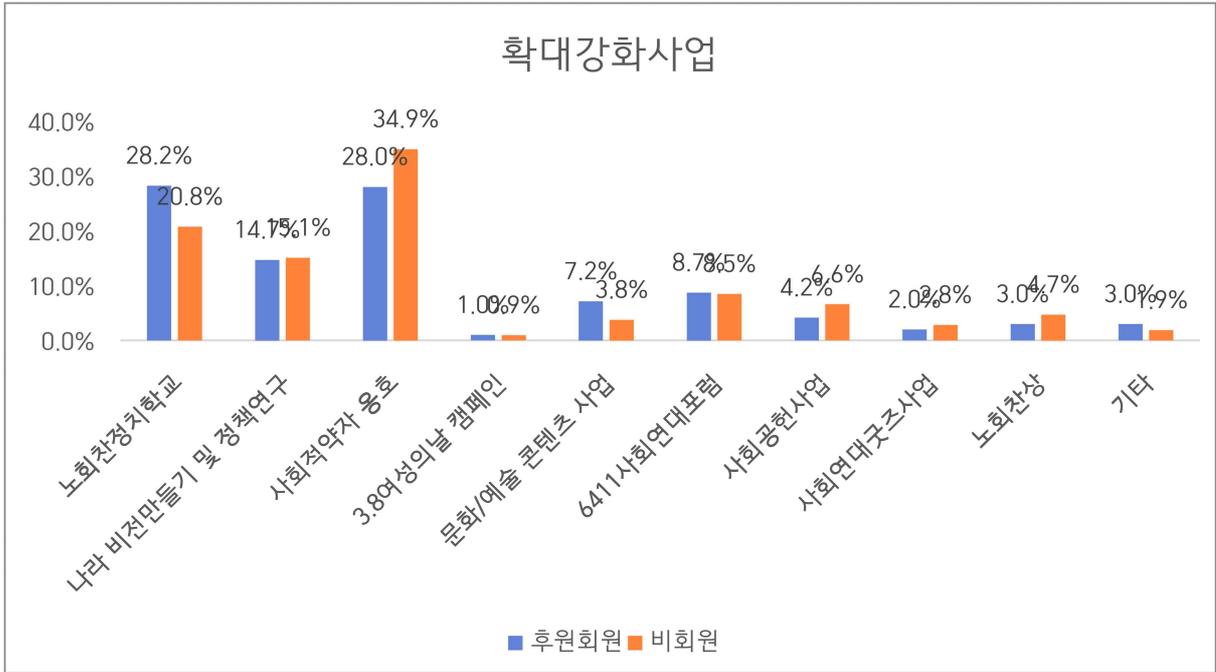


주) 그림은 1차 선택을 나타냄

			노회찬추모 및 기념사업	사회적약자 대변및지원	진보의 미래정치인 양성	평등하고공정한나라 비전만들기	국민의 정치의식 높이기
후원회원	1	빈도	55	155	83	100	110
		비율	10.9	30.8	16.5	19.9	21.9
	2	빈도	43	111	123	106	98
		비율	8.5	22.1	24.5	21.1	19.5
	합	빈도	98	266	206	206	208
		비율	19.5	52.9	41.0	41.0	41.4
비회원	1	빈도	13	31	26	20	17
		비율	12.1	29.0	24.3	18.7	15.9
	2	빈도	10	29	22	16	16
		비율	9.3	27.1	20.6	15.0	15.0
	합	빈도	23	60	48	36	33
		비율	21.5	56.1	44.9	33.6	30.8

- 노회찬재단의 사명은 <사회적 약자 대변 및 지원>이 후원회원과 비회원 모두에게서 1순위로 꼽혔다.
- 그 다음 순서로 후원회원의 경우 <국민의 정치의식 높이기>와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비전 만들기>로 나타났고, 비회원의 경우 <진보의 미래 정치인 양성>과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비전만들기>를 꼽고 있다.
- <노회찬추모 및 기념사업>은 10%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어, 노회찬재단이 고 노회찬의원 에 대한 직접적인 추모사업보다는 그 정신과 뜻을 이어가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주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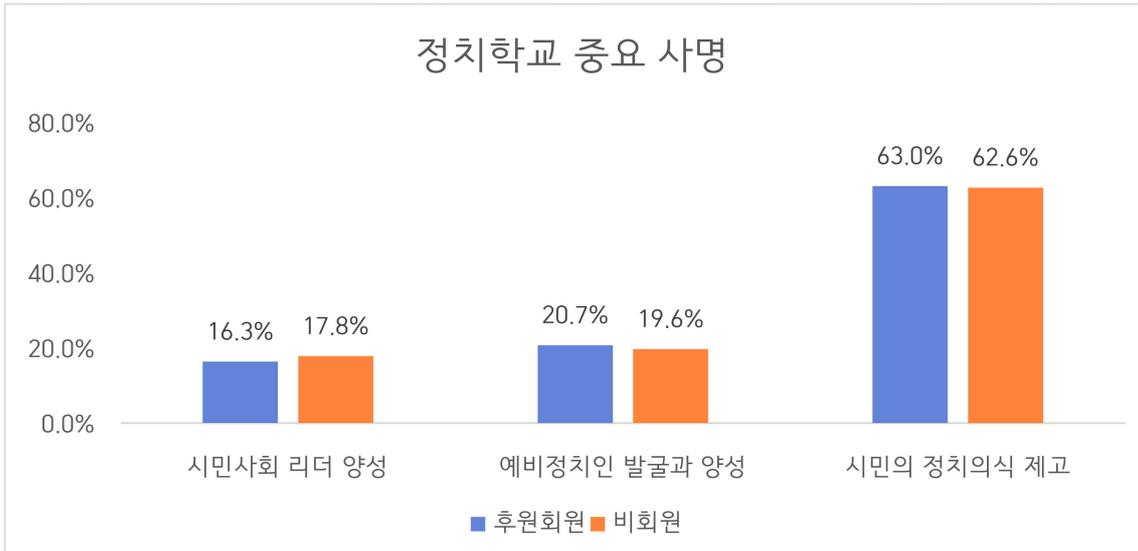
■ 다음 중 재단이 더욱 확대 및 강화해야 하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확대강화사업											전체
		노회찬정치학교	나라비전만들기 및 정책연구	사회적약자 옹호	3.8여성의날 캠페인	문화/예술 콘텐츠 사업	6411사회연대포럼	사회공헌사업	사회연대굿즈사업	노회찬상	기타		
후원회원	예	빈도	142	74	141	5	36	44	21	10	15	15	503
	비율		28.2	14.7	28.0	1.0	7.2	8.7	4.2	2.0	3.0	3.0	100.0
아니오	빈도	22	16	37	1	4	9	7	3	5	2	106	
	비중		20.8	15.1	34.9	0.9	3.8	8.5	6.6	2.8	4.7	1.9	100.0
전체	빈도	164	90	178	6	40	53	28	13	20	17	609	
	비중		26.9	14.8	29.2	1.0	6.6	8.7	4.6	2.1	3.3	2.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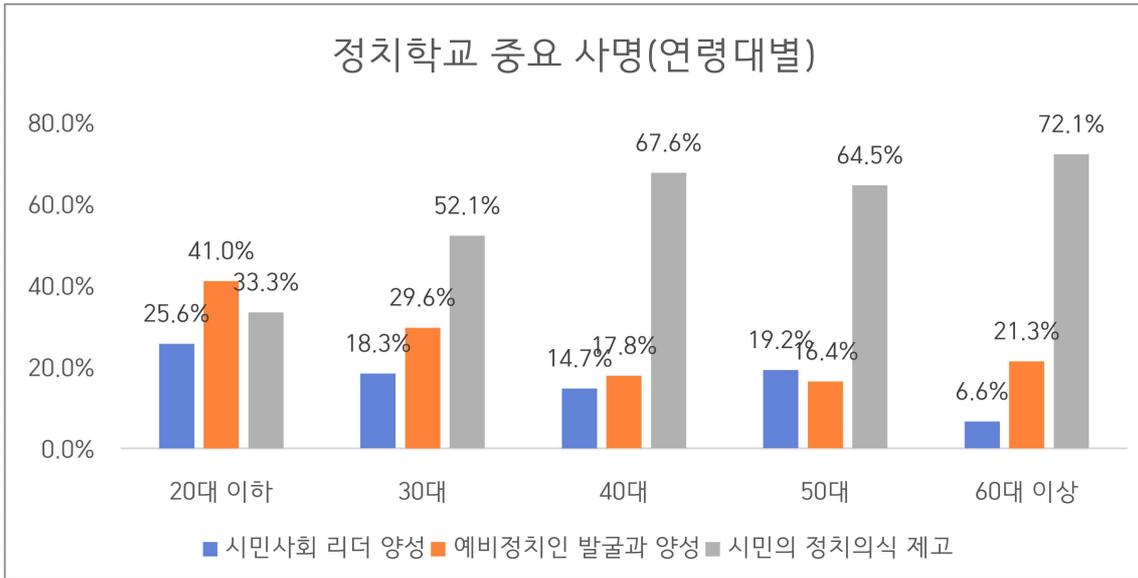
- 후원회원은 재단에서 확대·강화해야 할 사업으로 <노회찬정치학교>(28.2%)와 <사회적 약자 옹호(ex. 산재프로젝트 등)>(28.0%)을 꼽고 있음. 다음으로 <나라비전 만들기 및 정책연구>(14.7%)가 꼽힘
- 비회원의 경우 <사회적 약자 옹호>(34.9%)를 가장 우선으로 꼽고 있으며, 다음으로 <노회찬정치학교>(20.8%), <나라비전 만들기 및 정책연구>(15.1%)를 꼽음
- <6411 사회연대포럼>도 8%대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노회찬정치학교의 가장 중요한 사명(미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학교 중요 사명			전체
			시민사회 리더 양성	예비정치인 발굴과 양성	시민의 정치의식 제고	
후원회원	예	빈도	82	104	317	503
		비율	16.3%	20.7%	63.0%	100.0%
	아니오	빈도	19	21	67	107
		비율	17.8%	19.6%	62.6%	100.0%
전체		빈도	101	125	384	610
		비율	16.6%	20.5%	63.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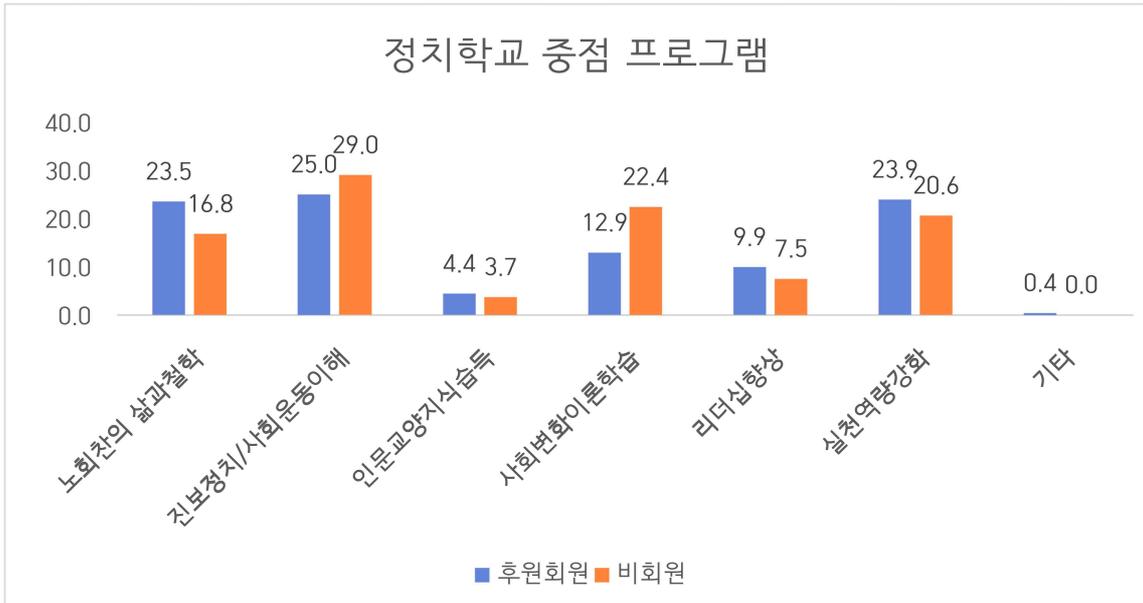
- 정치학교의 중요한 사명은 <시민의 정치의식 제고>의 비율이 응답자의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회원 63.0%, 비회원 62.6%).
- 그 다음으로 <예비정치인 발굴과 양성> (회원 20.7%, 비회원 19.6%), <시민사회 리더 양성> (회원 16.3%, 비회원 17.8%)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치학교 중요 사명			전체	
			시민사회 리더 양성	예비정치인 발굴과 양성	시민의 정치의식 제고		
연령대	20대 이하	빈도	10	16	13	39	
		비율	25.6%	41.0%	33.3%	100.0%	
	30대	빈도	13	21	37	71	
		비율	18.3%	29.6%	52.1%	100.0%	
	40대	빈도	33	40	152	225	
		비율	14.7%	17.8%	67.6%	100.0%	
	50대	빈도	41	35	138	214	
		비율	19.2%	16.4%	64.5%	100.0%	
	60대 이상	빈도	4	13	44	61	
		비율	6.6%	21.3%	72.1%	100.0%	
	전체		빈도	101	125	384	610
			비율	16.6%	20.5%	63.0%	100.0%

- 정치학교 중요 미션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의 경우 <예비정치인 발굴과 양성>에 더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 30대 응답자의 경우에도 <예비정치인 발굴과 양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 노회찬정치학교에서 중점을 뒀야 할 프로그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 그림은 1차 선택을 나타냄

		노회찬의 삶과 철학	진보정치/사회운동 이해	인문교양지식습득	사회변화이론학습	리더십향상	실천역량강화	기타	
후원회원	1	빈도	118	126	22	65	50	120	2
		비율	23.5	25.0	4.4	12.9	9.9	23.9	0.4
	2	빈도	55	93	24	76	60	175	2
		비율	10.9	18.5	4.8	15.1	11.9	34.8	0.4
	합	빈도	173	219	46	241	110	295	4
비율	34.4	43.5	9.1	28.0	21.9	58.6	0.8		
비회원	1	빈도	18	31	4	24	8	22	0
		비율	16.8	29.0	3.7	22.4	7.5	20.6	0.0
	2	빈도	12	15	7	13	12	40	1
		비율	11.2	14.0	6.5	12.1	11.2	37.4	0.9
	합	빈도	30	46	11	37	20	62	1
비율	28.0	43.0	10.3	34.6	18.7	57.9	0.9		

- 회원과 비회원 모두 노회찬정치학교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진보정치/사회운동 이해>를 꼽고 있다.
- 그 다음으로 후원회원의 경우 <실천역량 강화>와 <노회찬의 삶과 철학>의 순서를 보여주고, 비회원의 경우 <사회변화이론 학습>, <실천역량 강화>의 순을 보이고 있다.
- <실천역량 강화>의 경우 1순위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1순위와 2순위를 가중치 없이 합산할 경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실천역량 강화 학습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학교 중점 프로그램(1차 선택)							전체
			노회찬 의 삶과 철학	진보정 치/사회 운동 이해	기초인 문교양 지식 습득	사회변 화이론 지식 학습	정치가/ 리더 리더십 향상	사회문 제해결 실천역 량강화	기타	
연령대	20대 이하	빈도	9	11	3	8	4	4	0	39
		%	23.1	28.2	7.7	20.5	10.3	10.3	0.0	100.0
	30대	빈도	13	16	3	10	10	19	0	71
		%	18.3	22.5	4.2	14.1	14.1	26.8	0.0	100.0
	40대	빈도	54	59	11	33	19	47	2	225
		%	24.0	26.2	4.9	14.7	8.4	20.9	0.9	100.0
	50대	빈도	47	57	6	26	21	57	0	214
		%	22.0	26.6	2.8	12.1	9.8	26.6	0.0	100.0
	60대 이상	빈도	13	14	3	12	4	15	0	61
		%	21.3	23.0	4.9	19.7	6.6	24.6	0.0	100.0
전체	빈도	136	157	26	89	58	142	2	610	
	%	22.3	25.7	4.3	14.6	9.5	23.3	0.3	100.0	

			정치학교 중점 프로그램(2차 선택)							전체
			노회찬 의 삶과 철학	진보정 치/사회 운동 이해	기초인 문교양 지식 습득	사회변 화이론 지식 학습	정치가/ 리더 리더십 향상	사회문 제해결 실천역 량강화	기타	
연령대	20대 이하	빈도	2	6	2	7	4	15	1	37
		%	5.4	16.2	5.4	18.9	10.8	40.5	2.7	100.0
	30대	빈도	11	9	8	7	8	26	0	69
		%	15.9	13.0	11.6	10.1	11.6	37.7	0.0	100.0
	40대	빈도	23	41	14	40	22	74	0	214
		%	10.7	19.2	6.5	18.7	10.3	34.6	0.0	100.0
	50대	빈도	27	39	6	26	29	79	2	208
		%	13.0	18.8	2.9	12.5	13.9	38.0	1.0	100.0
	60대 이상	빈도	4	13	1	9	9	21	0	57
		%	7.0	22.8	1.8	15.8	15.8	36.8	0.0	100.0
전체	빈도	67	108	31	89	72	215	3	585	
	%	11.5	18.5	5.3	15.2	12.3	36.8	0.5	100.0	

- 정치학교가 중점을 두어야 할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연령대로 나누어 살펴보면 서로 다른 특성을 보여준다. 1차 선택에서 20대, 40대, 50대의 응답자는 <진보정치/사회운동 이해>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3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사회문제 해결 실천역량 강화>를 꼽았다.
- 2차 선택에서는 전 연령대에서 <사회문제 해결 실천역량 강화>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1차 선택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꼽았더라도 실천역량 강화는 필수적인 교육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함을 보여준다.